

#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 유치장 구금

벌점처분 없이 과태료만 부과되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과속·신호위반 등을 일삼는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올해부터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형사고 위험률이 높은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와 5 이상 대형화물차는 이달부터 우선 시행한다. 이후 4월 1일부터 사업용 차량, 7월 1일부터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관리는 과태료 부과 횟수가 많을수록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행했다.

경찰청이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 횟수와 인적사고 빈도를 분석한

## 과속·신호위반 등 일삼는 악성 운전자 대상 특별관리 기간 중 3회이상 위반시 구류 처벌

결과에 따르면 100명 당 인적사고 빈도는 1회 위반자가 7.0건인 반면 10회 위반자는 15.6회로 2배 이상 많았다.

지난해 178회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있었고 연간 10회 이상 위반자도 6만명(법인차량 포함)에 달했다.

특별관리 대상은 과태료를 10회 이상 부과받은 차량의 소유자와 관리자다. 한 번 지정되면 부과된 과태료·벌칙금을 완납하고 그 이후

로 1년간 추가위반이 없어야만 특별관리 대상에서 해제된다.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면 무인단속에 적발되더라도 통상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실제 운전자를 가려내기 위한 벌칙금과 벌점 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가 발송된다. 출석에 불응시 통고처분(벌점부과) 등을 받게 된다.

특히 대상자로 지정된 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30일 미만의 구류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이 청구된

다. 즉결심판에도 불응하는 경우 정식으로 형사입건해 처벌한다.

법인 소유의 차량의 경우에는 배차정보를 이용해 벌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민약 차량 관리의무자가 배차일 지나 실사용자를 밝힐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 법인대표 등을 양벌 규정으로 처벌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악성 운전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심각한 일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상자에게는 안전운전 안내서가 이달 발송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스

## 말레이시아 남부 홍수 피해 비상

말레이시아 남부에서 계속된 집중호우로 홍수가 발생해 14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뉴 스트레이트 타임스, 말레이 메일, 말레이시아 TV 방송 아스트로 아와니 등 현지 언론이 2일 보도했다.

뉴 스트레이트 타임스는 1일 저녁부터 내린 폭우로 200명의 주민이 추가로 대피했다고 전했다.

현지 민방위대는 성명에서 계속되는 호우로 강이 범람해 마을이 물에 잠겼다고 밝혔다. 조호르주 보건, 환경, 교육 정보 위원회는 지난 달 22일부터 계속되는 호우로 남부 5개주의 홍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남부에서는 파항주, 조호르 사바, 트렝가누, 켈란탄 등 5개주가 홍수 피해를 입었다. 최대 피해지역 파항에서는 5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조호르주에서도 이재민이 388명을 늘었다. 트렝가누주에서도 233명이, 사바주에서는 288명이 대피했다. 켈란탄주에서는 46명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민 대부분은 지역 주민센터와 학교에 임시로 마련된 대피소에 배치됐다.

말레이시아 기상청은 만조 현상이 내일까지 계속되며 저지대에 홍수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보했다.

## 브라질 교도소 폭동 9명 사망·14명 부상

브라질 중부 고이아스 주의 콜로니아 농업 교도소에서 폭동이 발생해 재소자 최소 9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다쳤다고 1일(현지시간) BBC, AP통신이 보도했다.

경찰 당국은 "폭동은 무장한 수감자들이 상대편 갱단이 머물고 있는 등을 침범하면서 시작됐다"라며 "폭동 이후 100명 이상의 죄수들이 탈옥했다. 지금은 모두 통제 하에 있다"고 밝혔다.

현지언론은 약 106명의 재소자들이 폭동 중 탈출했고, 당국은 이 중 2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매체는 수감자 127명이 탈옥했지만 자발적으로 돌아왔다고 보도했다.

사망자에 대한 신원 확인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한 재소자의 가족은 "오빠가 수감 중이다. 누구도 우리에게 누가 죽었고 누가 살아있고 누가 총에 맞았는지 말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שה해 첫 날인 이날 고작 5명의 교도관들이 900명의 재소자들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죄수들은 많고, 교정 인력은 부족한 브라질 감옥에서 폭동은 흔한 일이라고 BBC는 지적했다.

지난해 1월 1일 아마조나스 주의 한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 56명이 사망했고, 다음 날인 1월 2일에도 같은 주 교도소에서 폭동이 발생해 4명이 죽었다. 1월 8일에는 호라이마 주 의 한 교도소에서 43명이, 1월 14일에는 히우그라지두노르치 주의 한 교도소에서 26명이 각각 폭동으로 인해 사망했다.

## 필리핀서 연말연시 폭죽사고 약 200명 부상

필리핀에서 성탄절과 새해맞이 행사에서 발생한 폭죽사고로 약 200명이 다쳤다고 AFP, AP통신 등 외신들이 1일 보도했다.

프란시스코 두케 필리핀 보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건부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018년 1월 1일까지 폭죽사고로 다친 부상자가 어린이를 비롯해 191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7년 성탄절부터 2018년 새해 사이에 발생한 폭죽사고 중 115건이 마닐라에서 발생했다. 부상자 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생후 11개월 된 아기였다.

부상자 수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8% 낮다. 익명의 보건 당국 소식통은 AFP에 올해 부상자 수치도 여전히 우려할 만하지만, 집행 명령 덕분에 최근 상당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주로 천주교 신도가 많지만, 신년에 새해맞이를 위해 악령을 물리치는 폭죽을 터뜨리는 중국 전통 행사가 벌어지고 있다. 매년 새해가 되면 폭죽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해왔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폭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6월 폭죽 등 폭약 사용 규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사제 폭죽은 정부가 지정된 지역에서 더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정부의 허가 받은 훈련된 감시인의 관찰 하에 폭죽을 사용할 수 있다.

부상자 최소화 방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두케 장관은 "내 생각에 최종 목표는 폭죽놀이 전면 금지"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AFP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전면 폭죽 금지정책 채택을 고려할 수 있다며 별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살인죄 구형 대폭 높인다

### 아동 등 피해 최대 사형

검찰이 새해부터 살인범죄에 대한 구형량을 대폭 높인다.

특히 성폭행이나 미성년자 납치 등 강력범죄와 함께 살인죄를 저질렀을 경우 무기징역 구형을 기본으로 하며 최대 사형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올 해부터 살인죄 구형량을 높이고 사건처리 기준을 세분화한 내용의 '살인범죄 사건처리 기준 합리화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여성을 상대로 범죄가 이뤄질 경우 가중처벌 요소로 보기로 했다.

특히 성폭행과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 강력범죄와 결합되거나 극단적으로 인명을 경시한 살인죄의 경우 구형량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보복 또는 일면식도 없는 '물지마 살인', 금전적 이익을 노린 경우나 이미 살인을 저질렀거나 폭력 등의 전과가 있을 때도 가중 요소가 된다.

음주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은 심신미약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경 요소로 고려한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원인을 제공한 경우 등의 사대다.

대검은 살인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인 새 구형기준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흉악범죄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약 50명의 피해자가 살인 전과자로 인해 생명을 잃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뉴스스



산천어축제 얼음 천공하는 사람들 강원 화천산천어축제 개막을 나흘 앞둔 2일 축제 관계자들이 얼음낚시 천공작업을 벌이고 있다.

## 집중호우 등 미래 이상기온 예상보다 강하다

전남대 함유근·포항공대 국종성 교수 연구팀 연구

지구온난화로 인한 미래의 강수 세기 변화가 현재 다양한 기후예측 모형으로 제시되고 있는 추정치보다 최대 50% 이상 강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지구환경과학부 함유근 교수(제1저자)와 포항공대 국종성 교수(교신저자) 연구팀이 현재 강수 평균값과 미래 강수 강도 변화 사이의 관련성을 규명한 연구결과를 최근 네이처 자매지인 'Nature Climate Change'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강수 강도 변화 예측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기후예측 모형 간 미래 강수 강도 변화의 차이가 무작위한 것이 아니라 모형에서 제시되는 현재 강수 평균값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즉 현재 기후의 평균 강수 강도가 작을수록 미래 강수 강도 증가는 강하며 이의 물리적인 원인을 최초로 밝혀낸 것이다.

연구팀은 이 관련성을 이용해 현재 기후예측 모형들이 추정하고 있는 것보다 약 50% 정도 많은 강수 강도 변화가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강수 강도 변화가 큰 지역은 동아시아 강수 벨트가 위치한 한국, 일본 남부, 대만을 포함한 중국 남동부지역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 외에도 아프리카 남미지역의 강수 증가도 예상보다 클 것으로 봤다.

이는 지구 온난화가 유발하는 미래 강수 변화가 예상보다 강하고 전반적인 강수 증가 뿐 아니라 집중호우 등 이상 강수현상의 증가 역시

예상보다 가파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팀은 기후예측 모형 간 미래 강수 강도 변화의 차이는 크지만 이는 현재 평균 강수량에 크게 의존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시작했고 가설과 일치되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함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기후예측 모형에서 모의되는 미래 강수 변화를 통계적으로 보정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미래 강수 변화의 신뢰도를 높인 첫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기후변화 취약 생태지역 해양-대기 통합 연구)과 한국기상산업진흥원(다중 모형 예측 결과를 활용한 동아시아 강수 예측 시스템 최적화 기법 개발)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주춘경 기자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료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